해남상품권 누적판매 6000억 '지역경제 선순환'

군민 10명중 8명 사용
QR형 등 추가 도입

해남사랑상품권이 발행 5년 만에 6000억원 판매를 돌파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6064억원 누적 판매실적을 달성하며,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군민 10명중 8명이 실사용자인 셈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에 이바지 하고 있다. 상품권 실사용자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4만3982명에 달한다.

4만여명에 달하는 수치는 군이 어디서나 지역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한 할인판매 등 사용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되돌려 주면서 상품권 사용이 일상적인 소비행태로 자리잡은 결과이다.

군은 적극적인 국도비 유치를 통해 5년간 총 32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할인판매 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할인판매를 통해 5~1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그대로 되돌려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등록가맹점 수도 발행 초기 1600개소에서 3883개소까지 늘어나면서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지류형 외에도 카드형, QR형을 추가 도입하고 카드상품권 발급 금융기관도 다양하게 추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해남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할 계획으로 4~5월 해남사랑상품권 5주년을 기념해 10% 할인행사도 지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국비예산을 교부받아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착한가격업소 19개소에서 해남사랑상품권 카드형과 QR형으로 결제 시 결제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캐시백 행사도 추진한다.

상품권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정유통 없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담 직원의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이상 징후 발견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첫 발행부터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군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성공리에 안착이 되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방역소독기 무료 수리 점검
신안군, 14개 읍·면 방문

신안군이 여름철 해충 방역 활동을 위해 지난 25일까지 흑산면 홍도를 포함한 14개 읍·면을 방문하여 방역용 소독기 점검 및 수리를 시행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방역 기계 전문업체와 보건소 관계자가 동행해 차량용 및 휴대용 소독기 200여대의 배터리 등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했다.

읍·면 방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용 소독기 사용 방법과 주요 고장원인, 주의 사항, 응급조치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했다.

신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 방역 소독을 앞두고 방역용 소독기를 관리하여 해충 매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군이 여름철 해충 방역 활동을 위해 지난 25일까지 흑산면 홍도를 포함한 14개 읍면을 찾아가 방역용 소독기 점검과 수리를 펼쳤다.

신안군 제공

7월까지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영암군, 14개 학교 대상

영암군이 7월까지 사전 신청한 14개 초·중·고를 찾아 학생 1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홀로그램, 금연골든벨, 금연 특강으로 구성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28일 영암군에 따르면 홀로그램 교육은 특수제작된 전용 스크린에 3D 영상을 투영하는 기법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 신개념 강의다.

초등학교에서는 구강보건교육도 함께 진행해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전하고, 불소 가그린 제공 등 무료 구강관리서비스도 실시한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이 평생 금연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병영 기자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

무안군, 제주도 정기노선 취항 기념 이벤트

무안군이 제주항공의 무안-제주 간 정기노선 취항을 기념하기 위해 26일 무안국제공항 2층 국내선 출발장에서 제주항공,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와 함께 기념 이벤트를 개최했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무안공항은 소형항공사인 하이에어가 무안-제주 간 정기노선을 2021년부터 운항했으나 작년 10월부터 중단됨에 따라 국내 정기노선 없이 부정기 국제선만 운항했다.

무안군과 제주항공,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제주 정기노선 운항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항공에서는 무안-제주 간 무료 왕복항공권 2매를 첫 번째 예약자에게 증정하고 무안군과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무안과 제주의 만남 분위기 형성을 위해 무안 특산품과 제주 삼다수를 모든 탑승객에게 증정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산 군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원들은 특산품 증정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제주항공은 24일부터 무안-제주를 주 4회(월,수,금,일), 5월8일부터는 진에어가 무안-제주 간 정기선을 주 2회(목,일) 등 제주도 노선 2편이 운항된다.

한편 제주항공, 진에어는 지난 3월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와 정기노선 운항과 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제주항공은 4월부터 중국 장가계, 연길, 일본 사가를 정기 운항하며, 진에어는 5월8일부터 몽골 울란바토르를 처음 취항할 예정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강진군, 불금불파 댄스경연대회 신청자 모집

강진군은 5월4일, 오후 3시30분 병영시장에서 불금불파 댄스 경연대회를 통해 꿈과 끼를 겨룰 초·중·고등학생들을 모집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5월4일 불금불파 행사장 무대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치러지며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눠 부문별로 각각 금·은·동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총 6팀의 수상자에게는 금상의 경우 군수상과 강진사랑상품권(초등부 30만원, 중고등부 50만원), 은상과 동상의 경우 각각 교육장상과 강진사랑상품권(은상 초등부 20만원, 중고등부 30만원, 동상 초등부 10만원, 중고등부 20만원)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는 강진군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단체도 참가 할 수 있다. 참가자는 29일까지 각급 학교를 통해 신청하거나 이메일(kmk0719@korea.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불금불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2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마다 병영시장일원(병영면 남삼인길 6)에서 강진의 대표 먹거리 병영돼지불고기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행사로 개장식이 치러진 지난 19일에만 800여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는 등 강진 관광의 필수 코스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개별공시지가 공시
30일 부터

강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은 22만 251필지로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동결 정책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0.25%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되며,최종 결과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기업 모집
영암군, 노동자 주거 안정

영암군은 고용노동부의 '2024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대불산단, 삼호산단 중소기업의 노동자 주거 안정,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

기업 명의로 빌린 기숙사를 보유하고, 여기에서 생활할 노동자의 20%가 신규 채용자인 영암군 기업에게 기숙사 임차료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1인당 월 30만원이 최대 지원금이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뤄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재)전남인력개발원(061-461-2840, 2847)에 문의한 다음 신청하면 된다.

신규 고용률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무안군, 갯벌낙지 보호수면 운영
5~7월 3개월

무안군은 지역대표 수산물인 갯벌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탄도만 해역 4개소(200ha)에 보호수면을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또한 조업이 금지된다.

낙지 보호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의거 2007년부터 전남도에서 지정해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에는 보호수면 기간을 활용해 낙지 목장 조성, 어미 낙지 방류 등 다양한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해 지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